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

김종수*

1. 머리말
2.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변화
3. 번상병제에서 장번병제로 변화
4.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사 개설서로 정평이 난 국사편찬위원회의 신편 『한국사』는 조선을 초기, 중기, 후기로 3분하는 시기구분을 채택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중기'는 대체로 15세기 말엽에서 17세기 말엽까지 약 2세기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구분법을 채택하면서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군산대 교수

조선왕조 500년간에 대해 지금까지 학계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편 『한국사』에서는 초기·중기·후기로 나누는 새로운 시기 구분을 도입하였다. 중기 설정이 새로운 점이다. ... 종래의 전기·후기의 양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임진왜란이란 외침(外侵)을 구분점으로 삼은 것은 역사를 내재적으로보다는 타율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둘째로 그간의 여러 부면(部面)의 연구들은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 사이에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더 많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문제점은 양분법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사 인식에서 임진왜란을 중요시하는 사고는 아마도 일제 식민주의사관의 창출 과정에서 조장된 것이리라 짐작되지만, 돌이켜 보면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뒷받침의 노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이를 답습하기만 해온 점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¹⁾

즉,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왕조 500년을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는 것은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으며, 임진왜란 전후에는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은 식민주의사관의 창출 과정에서 조장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이를 답습해온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중국, 일본이 참여한 동아시아의 대전으로서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는 왕조와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즉 임진왜란 이후 중국은 명(明)에서 청(淸)으로 왕조가 교체되었으며, 일본은 도요토미 정권에서 도쿠가와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조선 역시 임진왜란으로 미증유의 참화를 겪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결(田結)이 감축되었으며, 각종 시설과 문서가 파괴되는 등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농촌 사회 역시 전후 복구 사업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농민층의 노력은 그들의

1) 이태진, 「개요」,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8, 1쪽.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세 사회 체제가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이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일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시기구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또 이것이 식민주의사관의 영향인 것도 아니다.²⁾

임진왜란 전후에는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는 지적에도 문제점이 있다. '연속성'이니 '단절'이니 하는 추상적인 용어는 사람마다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사족(사림)지배체제'라는 측면에서 임진왜란 전후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고 운위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를 보는 관점의 문제로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역사를 얼마든지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족이 아니라 민중의 측면에서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경제나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족지배체제'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임진왜란 전후 단절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정치적으로는 비변사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농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동법, 균역법 등이 실시되었고, 또 사상(私商)이 등장하여 금난전권이 성립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장시가 설립되는 등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전후에는 군사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군사제도 즉, 군제(軍制)는 국가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부문이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제도이다.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참화를 겪으면서 당시 군제의 문제점을 인식한 조선 정부는 우선적으로 군제의 개혁에 나섰다. 그리하여 중앙군으로는 훈련도감이 설립되고, 지방군으로 속오군이 등장하게 된다.³⁾ 이것은 제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러한 군제 개혁의 심층에는 '공병제(公兵制)에서 사병제(私兵制)로, 번상병제(番上兵制)에서 장번병제(長番兵制)로,

2) 김돈, 「제1장 조선중기 정치사의 이해방향」,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37쪽.

3) 조선 후기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해서는 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1999 ;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0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3. 등 참조.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라는 보다 깊은 개혁의 동기가 내재되어 있었다. 즉 조선전기 공병제, 번상병제, 기병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군제는 2백년 동안 유지되면서 큰 전란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자 많은 문제가 쌓이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즉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내재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표면에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쟁이었다.

본 연구는 조선 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군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드러났고, 또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군제의 변화가 임진왜란이란 외침으로 인해 나타났지만 변화의 요인과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선 사회 내부이고 임진왜란은 그 변화의 촉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시기 구분의 기점으로 삼는다하여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진행된 군제 변화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정리하려 한다.

2.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변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변화로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군사지휘체계가 공병제(公兵制)에서 사병제(私兵制)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선 공병제와 사병제의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병(私兵)의 의미와 여기에서 말하는 사병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병은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사적으로 예속된

4) 사병제와 공병제에 대해서는 拙稿, 「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 73, 2000 ; 「朝鮮初期 中央軍制의 整備와 私兵制 改革」, 『朝鮮의 政治와 社會』, 集文堂, 2002 ;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3, 79~81쪽 ; 「신라 하대 軍制의 변화와 그 붕괴」, 『軍史』 80, 2011, 14쪽 참조.

무력 집단'을 뜻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병제는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서 장군(지휘관)과 군인이 비교적 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즉, 사병제는 군사지휘체계와 관련된 용어로서, 사병제의 반대는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과 고정된 지휘관이 없는〔無定將 無定卒〕⁵⁾ 상태로 운영되는 공병제이다.⁶⁾

공병제가 끊임없이 지휘관과 그 군인을 교체하는 체제라면, 사병제는 고정된 지휘관이 군인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이들을 이끌고 직접 전쟁에 나가는 체제이다. 부대의 전투력은 개별 군인들의 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장수의 지휘 하에 군인들이 일치단결했을 때 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력 측면에서 사병제는 공병제보다 훨씬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병제 하에서 군인들은 국왕보다는 자신의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 정국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사병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국이 불안할 때에는 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군인들이 반란에 동원될 소지가 있다. 즉 정치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사병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왕조 초기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강조될 때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되곤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광종(949~975) 이후~무신정변(1170) 전까지와 조선 태종 즉위년(1400) 사병혁파 이후~임진왜란(1592) 전까지이다. 고려 광종 때는 천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된 첫 번째 시기이다. 역사상 국가가 등장하고 군사제도가 출현한 이후 군사지휘체계는 사병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시사회를 지나 국가가 성립한 고대부터 각 지역의

5) '無定軍 無定將'은 柳馨遠의 『礪溪隨錄』에 나오는 공병제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즉 『礪溪隨錄』 권21, 兵制 五衛 (東國文化社 影印本 p.390)에서는 '本朝雖有五衛之設 衛將十二員 通號五衛將 而未嘗定任爲某衛將 每至入直闕內 受點定所 三日而更 以至監門巡衛 皆無定軍 亦無定將'이라 하여 조선초기에 공병제 형태로 운영되는 군제를 '無定軍 無定將'이라고 표현하였다.

6)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이 없는 공병제를 중국사에서는 '兵無常將, 將無常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劉建軍, 『第十三講 軍帥政權與帥軍政權』, 『古代中國政治制度十六講』, 上海人民出版社, 2009, 214쪽의 '3.兵無常將 將無常兵' 참조.

부족장이 군사 지휘관이 되어 부족원들을 군인으로 만들고, 이들을 훈련시키며 전투에 동원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혔을 것이다. 사병제는 삼국시기에 특히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각기 유능한 지휘관들이 휘하 군인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켜 삼국통일 전쟁에 나섰던 것이다.⁷⁾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서 사병제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노출되었다. 진골 귀족들은 사병제 하의 휘하 군인을 동원하여 왕위 쟁탈전에 나섰다. 군인들도 왕보다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왕들이 피살되고 새로운 군사적 실력자가 왕위를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의 군체가 붕괴되었다.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겪은 이후 고려 광종(949~975) 때에 이르러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되었다. 조선왕조가 개창한 후인 태종 14년(1414) 병조에서는 고려 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는 시위(侍衛)하는 병사가 다만 번(番)갈아 입직(入直)할 때 감히 그 장수(將帥)에게 사알(私謁)하지 못하였으며,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도 또한 감히 사사로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⁸⁾

여기에서 '전조(前朝)의 성시(盛時)'는 광종 이후 고려전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종 이후 공병제가 시행될 때에는 지휘관과 병사 간에 사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 이와 같이 군인들의 사적인 접촉이 금지되고, 군인들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문반 위주의 정치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신정권이 성립한 이후 공병제는 해체되고 다시 사병제가 등장하였다.

무신정권 성립 이전에는 국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

7) 『三國史記』 41, 列傳 1, 金庾信 上. '(金)庾信揀得國內勇士三千人'

8) 『太宗實錄』 27, 太宗 14년 2월 癸丑, 2책, 6쪽. '前朝盛時 侍衛之兵 止於更番入直 不敢私謁於其將 道途相遇 亦不敢私語'

무신정변 당시에도 이고(李高)와 이의방(李義方)은 국왕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서야 비로소 순검군을 동원하여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다.⁹⁾ 그러나 무신정권이 수립된 이후 사병제가 등장하자 병권은 무신 집권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¹⁰⁾ 집권자와 장수들의 마음대로 군인들이 소집·동원되었고, 이들의 집권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원간섭기나 고려 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충렬왕 29년(1303) 8월 홍자번(洪子蕃)과 재추들은 군인을 거느리고 왕궁을 포위하고 국왕을 협박하면서 폐행(廢幸) 오기(吳祁)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¹¹⁾ 또 우왕 5년(1379) 9월 최영과 경복흥, 이인임 등은 군대를 대대적으로 집결하고 국왕을 협박하면서 왕의 유모 장씨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¹²⁾ 군사를 동원하여 국왕을 협박할 정도로 군사 동원이 국왕의 뜻에 반(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조선왕조 개창이라는 역사적 사건 역시 이러한 사병제를 기반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1·2차 왕자의 난 등 수차례 권력쟁탈전을 치른 이후 결국 정종 2년(1400) 4월, 당시 집권자인 태종에 의해 사병제 혁파가 이루어졌다.¹³⁾ 고려 무신정권이 등장하고 사병제가 도입된 지 무려 230년 만에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회복된 것이다. 사병제가 혁파된 이후 군인들은 장군 집에 갈 수 없었으며¹⁴⁾, 또 장군들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사냥 가는 것도 금하였다.¹⁵⁾ 심지어 갑사(甲士)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까지 금지되었다.¹⁶⁾ 그리고 태종 8년(1408)에는 병조와 의흥부(義興府)의 명문(明文)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소집하는 자는 모두 모역으로 논한다는

9) 『高麗史』 19, 世家, 毅宗 24년 8월 丁丑, 上冊, 387쪽. ‘先行矯旨 集巡檢軍’

10) 『高麗史』 81, 兵 1, 序文, 中冊, 775쪽. ‘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 悍將勁卒 皆屬私家’

11) 『高麗史節要』 22, 忠烈王 29년 8월, 581쪽.

12) 『高麗史節要』 31, 禔王 5년 9월, 776쪽.

13) 『定宗實錄』 4, 定宗 2년 4월 辛丑, 1책, 169쪽. ‘罷私兵’

14) 『太宗實錄』 1, 太宗 원년 5월 戊申, 1책, 204쪽.

15) 『太宗實錄』 9, 太宗 5년 3월 乙卯, 1책, 322쪽. ; 『太宗實錄』 13, 太宗 7년 4월 辛卯, 1책, 389쪽.

16) 『太宗實錄』 21, 太宗 11년 3월 辛亥, 1책, 577쪽.

법이 반포되었다.¹⁷⁾ 이에 따라 병조의 공문이 없으면 비록 장군이라도 병사 1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정책으로 조선전기 공병제는 확립되었고, 공병제 관념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객재우가 의병을 일으키자 함천군수 전현룡(田見龍)이 그를 역적으로 보고하고 체포하려는 일이나¹⁹⁾, 청양현감 임순(任純)이 호서의병장 조헌을 도우려하자 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이 그를 체포하여 치죄한 일,²⁰⁾ 건의대장(建義大將) 심수경(沈守慶)이 충청도 유생들의 의병장 추대를 거절하면서, “조정의 명령 없이 의(義)를 들어 기병하는 것은 사리와 체통이 편치 못하다.”²¹⁾라고 한 경우 모두 조선전기의 공병제 관념 속에서 나온 말들이다.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사병제 혁파, 공병제 시행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태종 14년(1414) 4월 대언(代言) 한상덕(韓尙德)은 사병제 혁파 이후

사병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군사가 장수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가 비록 위험에 처해지더라도 아무도 구원하려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장수는 군사를 훈련하지 못하고, 군사는 (장수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두 힘써 싸우지 않으니, 어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²²⁾

라는 비난이 조야(朝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국왕에게 아뢰고 있다. 세종 29년(1447) 신숙주(申叔舟) 역시 사병제 혁파로 ‘장수는 군인을 알지 못하고

17) 『太宗實錄』 22, 太宗 11년 11월 癸未, 1책, 611쪽.

18) 『世宗實錄』 66, 世宗 16년 10월 庚午, 3책, 599쪽. ‘無兵曹公文 雖一隊副 護軍不得擅發’

19) 『宣祖實錄』 27, 宣祖 25년 6월 丙辰, 21책, 505쪽. 『鶴峯集』 3, 申敦郭再祐狀.

20) 『宣祖修正實錄』 26, 宣祖 25년 8월 戊子, 25책, 624쪽. ‘靑陽縣監任純以兵百餘人助憲, 國馨以爲, 違其節度, 囚繫治罪’

21) 『瑣尾錄』 2, 雜錄, 右建義大將沈相爲義兵都體察使. ‘無朝廷命令 而邊應儒士等之請 舉義起兵 事體未便’.

22) 『太宗實錄』 23, 太宗 12년 4월 丙子, 1책, 633쪽.

군인은 장수를 알지 못하여' 군사력이 허약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병제의 복구를 요청하는 책문을 올리고 있다.²³⁾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적 자질이 없다.”라는 국왕 선조의 말에 대하여

전조(前朝)인 고려 때에는 권신들이 병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조(我朝)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혁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환(內患)은 없지만 외우(外憂)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출전할 때 장수는 있으나 그에 소속한 병사가 없게 된 것입니다.²⁴⁾

라고 하여, 전쟁에서 패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사적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전기 공병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군사들을 출전시켜야할 때 단지 장수만 있고 소속된 병사가 없는 상태를 가져왔다. 이에 조선은 초전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정엄(李廷龜:1541~1600)은 이러한 군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지금 조정에는 숙장(宿將)이 없고, 장수에게는 친병(親兵)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평시에는 군인을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전쟁이 닥치면 군인들을 싸움터로 내몰고, 군인들은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전조(前朝)의 폐기(牌記)나 명(明)의 속오제(束伍制)와 같이 뛰어난 자를 장수로 삼아 그로 하여금 군인을 스스로 택하여 훈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²⁵⁾

위에서 이정엄은 조선전기의 군제를 비판하면서 조선 건국 무렵 개혁의

23) 申叔舟, 『保閑齋集』 권13, 策『置私兵 禮大臣 分政權 復政房』, ‘革私兵者 懲高麗權臣跋扈之弊也 夫私兵之設 初欲居京城 而衛王室 及其弊也 君弱臣強 冠屢倒置 此私兵之不可不革也 而昇平日久 兵備惰弛 將不識兵 兵不知將 倉卒不可用也 此所以有復私兵之請也’

24) 『宣祖實錄』 48, 宣祖 27년 2월 丙子, 22책, p.229. ‘上曰 賊之號令風生 可見有才矣 我國之人無才 故不能耳 成龍曰 前朝高麗時 權臣持兵 而我朝則革去此弊 故無內患而有外虞矣 出戰時 只有將帥 而無素屬之兵矣’

25) 李廷龜, 『四留齋集』 6, 十條筭 丁酉(선조 30년:1597) (한국문집총간 51책 304쪽)

대상이 되었던 고려 말 사병제인 '패기(牌記)'²⁶⁾나, 명나라 속오제로 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결국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전기 군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명확한 지휘편제와 상하 연대책임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사병제 형식을 다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정부 관료들은 '장수는 군인을 알고, 군인은 장수를 알아야(將知其兵 兵知其將)' 효과적으로 응적할 수 있고²⁷⁾, 장수가 병졸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병졸이 장수를 부모처럼 따라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졸들이 장수의 명령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²⁸⁾ 이러한 분위기에서 임진왜란 중 새로이 설립된 훈련도감에서는 명확한 지휘편제를 강조하는 『기효신서』의 속오법을 도입하였다.

선조 26년(1593) 10월에 설립된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대장(大將)-중군(中軍)-별장(別將)·천총(千總)-과총(把總)-초관(哨官)-군병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지휘 체계를 수립하였다. 조선전기에 장관과 군인을 끊임없이 교체하는 공병제와는 달리, 훈련도감은 장관과 군인을 영속적·일원적인 지휘체계로 편제하였고, 이러한 군제 하에서 상명하복은 철저히 관철될 수 있었다. 군인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였던 것이다.²⁹⁾ 이러한 군대 조직의 성격으로 인해 조선후기에 훈련대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해졌다. 훈련대장은 훈련도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2품 중군 이하 종9품 초관에 이르는 지휘관 전체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훈련대장은 훈련도감의 지휘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26) 『太祖實錄』 1, (總書) 辛禡 6년 8월, 1책 9쪽. '高麗末 官不籍兵 諸將各占爲兵 號曰牌記 大將'

27) 『宣祖實錄』 134, 宣祖 34년 2월 己卯, 24책 197쪽.

28) 『宣祖實錄』 51, 宣祖 27년 5월 丁未, 22책 287쪽.

29) 柳赫然, 『野堂遺稿』 권3, 附錄, 遺事 (한국문집총간 122책 345쪽). '上嘗欲觀李浣軍令 密教迫浣 浣於演場 麾旗向江 士爭赴水 如是者三 遂翻麾直向都城 … 浣兵直入 時水橋市人 姓黃者 拔折草刀向浣 爲所縛 上御敦化門觀之 兵到咫尺 鳴金始散 三司請浣罪 上不允' 위 사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감군들은 훈련대장 李浣의 명령에 따라 강물 속에 뛰어든 기를 세 번이나 하고, 심지어 국왕의 지적까지 달려들어 국왕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있었다. 1623년 인조반정에서 훈련도감군들은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의 명령에 따라 반정군이 몰려올 때 국왕 광해군에 대한 호위를 포기하여 결국 반정을 성공하게 하였다. 이러한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인 훈척 무신을 훈련대장에 임명하였고, 이것은 조선후기에 관례가 되었다.³⁰⁾

훈련대장은 국왕의 심복인 동시에 집권세력의 권력 기반이기도 하였다. 훈련대장은 왕권의 확립·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 내의 인물로 임명되어 집권세력의 정치질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일어날 때 훈련대장 역시 교체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숙종이 즉위할 때까지 60년 동안은 환국과 같은 격심한 정치적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훈련대장의 교체는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숙종 대에 들어와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정쟁이 심화되면서 환국이 거듭되었고, 이러한 환국이 발생할 때마다 훈련대장은 교체되고, 처형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과거의 훈련대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새 정권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정조대를 거쳐 세도정치기에도 김조순과 조만영 등 권력집단의 핵심 인물들은 훈련대장 등 군영대장을 맡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정치에서 훈련대장 등 군부 세력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가 사병제를 다시 채택하자, 조선후기 정치에서 군사적 비중과 영향력이 다시 높아지게 된 것이다.

30) 『顯宗改修實錄』 권5, 顯宗 2년 6월 癸巳, 37책 237쪽. ‘盖以輩下掌兵之任 自仁祖以來 連付勳戚’

3. 번상병제에서 장번병제로 변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두 번째 변화는 군인들이 번상병(番上兵)에서 장번병(長番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조선전기의 중앙군인 갑사(甲士)와 정병(正兵) 모두 일정한 번차에 따라 교대 근무하는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울에서 교대 없이 계속 장번으로 근무하고 급료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훈련도감군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중앙군은 대체로 두 가지 계통의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군역을 치러야 하는 군인이 있었다.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조선전기의 갑사, 조선후기의 훈련도감군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것이 조선전기의 정병, 조선후기 군영의 여러 번상병들이다. 이 중 중앙군의 중추적인 군사력을 이루는 것은 전자이다. 조선전기의 갑사는 부농, 지주층 출신의 무사로서, 그리고 조선후기의 훈련도감군은 수도에 상주하는 장번병으로서 국가와 정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무력적 기반이었다. 이에 반해 후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번상병으로서 상변 시에는 중앙군에 소속되었고, 하변 시에는 지방군에 편입되는 존재였다. 이들은 전시에는 모두 전투에 동원되었겠지만, 평시에는 인적·물적 수취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앙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대표하는 조선전기의 갑사, 조선후기의 훈련도감군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갑사는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다.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이 이와 같이 번상병제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전기의 갑사가 유일하다. 삼국·통일신라시대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은 골품제에 기반을 둔 무관으로서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고 장번(長番)으로 근무하였다.³¹⁾ 고려시대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은 5품 이하의

3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군제에 대해서는 拙稿, 「고구려의 軍制와 그 承繼」, 『歷史敎

무관인 부병(府兵)으로서 이들 역시 국가로부터 전시과와 녹봉을 받고 장번으로 근무하였다.³²⁾ 그러나 조선전기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인 갑사는 5품 이하 무관이었지만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다. 갑사가 번상병제로 운영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갑사는 원래 태조 이성계의 휘하군사로 출발하였다. 고려 말의 군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무신정변 이후 공병제가 무너지고 사병제가 성립하면서 장수 중심의 군사체제를 갖추었다. 그래서 군대의 징발과 통솔권이 모두 장수에게 위임되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각 장수들은 자신의 휘하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것은 이성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성계는 대략 2,000명 정도의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야말로 이성계가 고려 말 정권을 장악하고 새 왕조를 창건할 수 있었던 무력적 기반이었다.³³⁾

이성계는 조선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그의 휘하 군사를 중심으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였는데³⁴⁾, 여기에 소속된 군인을 갑사라 칭하였다. 그런데 당시 의흥친군위는 왕자와 공신들에 의해 병권이 분장(分掌)된 사병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갑사는 이들 각 통솔자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에 갑사는 1·2차 왕자의 난 때 권력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갑사는 정종 2년(1400) 8월의 혁파 조치³⁵⁾와 그 해 12월 복립(復立) 조치를 겪으면서 국가의 공병으로 제도화되었다. 즉 정종 2년 12월 태종 즉위 이후, 태종은 그 해 8월에 혁파된 갑사 2,000명을 복립하여, 1년 고대로 1,000명씩 10사(司)에 충원하도록 하였다.³⁶⁾ 이로써 사병제로 운영되어

育』96, 2005. :『백제 軍制의 성립과 정비』, 『歷史教育』103, 2007. :『新羅 上古期 軍制의 성립과 개편』, 『軍史』73, 2009.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研究』126, 2004. :『신라 하대 軍制의 변화와 그 붕괴』, 『軍史』80, 2011. 참조.

32) 고려의 군제에 대해서는 拙稿, 『高麗·朝鮮初期의 府兵』, 『歷史教育』69, 1999. :『高麗 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73, 2000. 참조.

33) 拙著,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3, 25쪽.

34) 『太祖實錄』1, 太祖 원년 7월 丁酉, 1책 20쪽.

35) 『定宗實錄』6, 定宗 2년 8월 癸巳, 1책 183쪽.

36) 『定宗實錄』6, 太宗 즉위년 12월 辛卯, 1책 187쪽. ‘復立甲士二千 一千充諸衛之職 一年相遞爲式’

국가기구보다는 왕실과 공신들의 개인적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던 갑사는 중앙군사조직인 10사에 소속되어 삼군부(三軍府)에 의해 통솔되었다. 갑사가 삼군부로 귀속된 이후 무신정권 이래 존속한 군사와 장수의 사적 유대는 해체되고 국가 기관에 의한 공적인 군사의 통솔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10~30인에 이르는 삼군부의 진무(鎭撫)들이 윤번으로 갑사를 지휘·통솔하였고³⁷⁾, 지휘관과 갑사의 사적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

그런데 태종 10년(1410) 3월 국왕은 2,000명이었던 갑사의 군액을 3,000명으로 증액하고, 이들을 상·하번으로 나누어 번상하는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³⁸⁾ 이것은 그 이전에는 갑사가 모두 서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는데, 이제 이들을 2교대로 나누어 당번이 되면 상경하여 근무하면서 녹봉을 받고, 하번이 되면 귀농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조판사 이응(李膺)은 “어찌 녹을 받는 관직자들로 하여금 상·하번으로 번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라 하여 반대의 뜻을 표명하지만, 그 해 4월 사간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결국 갑사는 번상하는 병종으로 굳어지게 되었다.³⁹⁾ 태종 10년 5월에는 갑사 3,000명의 번상제도가 확정되고, 동시에 각 품직에 따른 인원수도 정해졌다.⁴⁰⁾ 이로써 조선전기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인 갑사는 무관으로서 항상 서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던 상태에서 일반 민의 의무 균역인 시위패(후에 정병)와 마찬가지로 병농일치(兵農一致)에 따라 번상하는 병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갑사를 번상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왕 태종의 강력한 의지에

37) 徐居正, 『四佳集』 권1, 記「五衛都總府題名記」(한국문집총간 11책 199쪽).

38) 『太宗實錄』 19, 太宗 10년 3월 戊辰, 1책 531쪽. '予將使甲士 更迭番上 當番者受祿 下番者歸農'

39) 『太宗實錄』 19, 太宗 10년 4월 丁巳, 1책 543쪽.

40) 『太宗實錄』 19, 太宗 10년 5월 丙戌, 1책 550쪽.

이때 甲士는 10司 50領의 매 1명마다 司直(5품) 6명, 副司直(6품) 12명, 司正(7품) 18명, 副司正(8품) 24명, 合計 60명이 배정되었다. 즉 갑사는 1사=5명 당 300명으로, 10司로 이루어진 三軍 전체 3,000명의 군액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번 갑사 2,000명은 녹봉을 받고, 하번 갑사 1,000명은 녹봉을 받지 못하였다. 마침내 태종 10년 5월 국왕이 상·하번 갑사 3,000명에게 職牒을 정식으로 수여함으로써 갑사의 번상은 제도화되었다.

의해 가능하였다. 태종은

(갑사를) 1천 명을 더 정해 2번(番)으로 나누어 1년 만에 서로 교대하면, 나라에는 시위(侍衛)의 허소(虛疎)함이 없고, 집안에는 폐농(廢農)의 탄식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부모(父母)·처자(妻子)가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있는 원망이 없을 것이다.⁴¹⁾

라고 하면서 갑사의 번상제를 추진하였다. 사간원에서 “전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중농(重農)의 뜻 역시 지극합니다.”라고 동조하면서 갑사의 번상제가 관철되었다. 태종은 갑사의 수를 늘려 번상제로 운영하면 ‘시위의 허소함이 없고, 폐농의 탄식이 없으며, 부모·처자가 여러 해 떨어져 있는 원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갑사의 번상제를 추진하였지만, 그의 의도는 이와 같이 백성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상 태종만큼 병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왕도 드물었다. 태종은 자신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은 병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⁴²⁾ 따라서 그는 병권의 향방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태종 스스로

자고(自古)로 병권(兵權)의 연혁(沿革)에 대하여 과인(寡人)같이 용심(用心)한 자가 없다.⁴³⁾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병권의 향방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운 태종은 갑사가 교대 없이 장번제로 근무를 할 경우 그 지휘관인 장군과 필연적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즉 사병제 혁파로 일단 장군과 갑사의 사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차단시켰지만, 이들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경우 사병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41) 주 35)와 같음.

42) 『太宗實錄』 14, 太宗 7년 9월 丁巳, 1책 413쪽. ‘上曰 … 我太上 由都摠諸軍而卽位’

43) 『太宗實錄』 18, 太宗 9년 8월 丁卯, 1책 504쪽.

태종은 갑사의 번상제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방에서 살면서 교대로 서울로 번상 근무하면 장군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따라서 사적 관계가 형성될 우려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태종 때 장번제에서 번상제로 바뀐 갑사는 세종대 이후 번수(番數)가 들어나면서 실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게 된다. 즉, 갑사들은 태종 10년(1410)에는 2교대로 1년씩 근무하던 데서, 세종 10년(1428)에는 3교대로 1년씩 근무하였고, 세종 22년(1440)에는 6교대로 6개월씩 근무하였으며, 세조 3년(1457)에는 11교대로 4개월씩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던 갑사의 근무 번수는 결국 『경국대전』에서 5교대로 6개월씩 근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⁴⁴⁾ 갑사는 2년 6개월마다 서울로 올라와 6개월간 근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갑사의 근무 번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갑사의 정원도 증가하여 실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갑사의 수는 대략 1,500명 선을 유지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갑사의 정액은 14,800명인데 여기에는 수도에 번상하지 않는 양계갑사(兩界甲士) 6,800명과 호랑이를 잡는 착호갑사(捉虎甲士) 440명이 포함되어 있다. 갑사는 5교대로 나누어져 6개월씩 복무하였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자는 2,860명이었는데, 양계갑사와 착호갑사를 제외하면 수도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병력은 1,500명 정도이다.

이와 같이 갑사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번수(番數)를 늘리어 이들이 지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점차 갑사의 무예 수준이 떨어지고, 번상근무 역시 부실하게 되었다. 세종 27년(1445) 의정부에서는

갑사는 국왕을 시위하는 정졸(精卒)인데 번상(番上)하는 날은 적고 퇴휴(退休)하는 날은 많으며, 그 수효도 외람되게 많아 정예(精銳)라 할 수 없사운데, 하번(下番)할 동안은 한가하게 놀면서 해이해져서 군장(軍裝)과 마필(馬匹)을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다가, 번상(番上) 때가 되면 혹 서로 대차(貸借)하니, 만일 급한 일이 있게 되면 실상 쓸모없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⁴⁵⁾

44) 車文燮, 『鮮初의 甲士』,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大出版部, 1982, p.27. <표> 참조.

45) 『世宗實錄』 109, 世宗 27년 7월 庚寅, 4책 626쪽.

라 하여 번상제로 운영되는 갑사의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갑사들이 한번 하여 집에서 한가하게 놀면서 지내니, 이들은 쓸모없는 군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갑사들은 “상변할 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립(代立)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점열하는 것이 상례이다.”⁴⁶⁾라고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상변 시 다른 사람을 대립시키고 자신은 고향에서 군사 훈련과는 무관하게 편안히 지내던 사람들이 정예 군사가 될 리 없다.

갑사의 번상제는 태종이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하였지만, 갑사의 군사적 실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이른바 정병·갑사라 하는 자들은 모두 군사가 아니다.”⁴⁷⁾라 하면 당시 군사력의 허약함을 통탄하였다. 또 선조는 갑사와 정병같이 병농일치로 운영하는 군사들은 군인이 아니라 농부라고 하였다. “병사들을 농토로 보내면 이들은 농부이지 어떻게 군사 훈련할 수 있겠는가?”⁴⁸⁾라고 반문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번상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중앙군의 중추적인 군사력을 번상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중국, 일본이 참전한 전쟁이기 때문에 삼국의 군제가 극명하게 비교되었다. 당시 국왕과 관료들은 임진왜란 초기 패전 원인을 규명하는 가운데 우리 측 군사력의 열세가 군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이나 중국은 모두 병농분리(兵農分離), 장병제로서 군인들이 급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여 평소 훈련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병농일치(兵農一致), 번상제로서 군인들이 농사일 때문에 군사 훈련은 등한히 한 것이 군사력의 열세를 가져왔다는 것이다.⁴⁹⁾ 이에 선조

46) 『中宗實錄』 57, 中宗 21년 7월 壬辰, 16책 518쪽.

47) 『宣祖實錄』 45, 宣祖 26년 윤11월 癸巳, 22책 138쪽.

48) 『宣祖實錄』 50, 宣祖 27년 4월 乙丑, 22책 254쪽. ‘上曰 … 若使兵就農 則是乃農夫也 豈能坐作擊刺乎?’

49) 『宣祖實錄』 33, 宣祖 25년 12월 己酉, 21책 592쪽. : 『宣祖實錄』 34, 宣祖 26년 정월 庚申, 21책 596쪽. : 『宣祖實錄』 41, 宣祖 26년 8월 辛卯, 22책 68쪽.

26년(1593) 2월 국왕은 비변사에 군제 개혁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⁰⁾ 그해 10월, 장변병제로 운영되는 훈련도감의 설립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설립으로 중앙군제가 번상병제에서 장변병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훈련도감군은 장변 급료병으로서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왕의 시위와 서울의 경비·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선조 27년(1594) 비변사에서 “훈련도감을 설치할 때 여러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효과가 뚜렷하였다.”⁵¹⁾라고 말할 정도로 장변병인 훈련도감은 번상병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장변병제는 서울에 새로운 현상을 가져왔다. 우선 장변병제는 도성 내에 소비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정상기(鄭尙驥: 1678~1752)는 『농포문답(農圃問答)』에서 임진왜란 이후 군문이 증설되면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전국의 물자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⁵²⁾ 이러한 서울의 소비인구 증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상업 인구나 서울 근교의 상업적 농업을 경영하는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⁵³⁾ 즉 훈련도감과 같은 장변병의 등장은 군인과 그 가족들만으로도 서울의 인구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업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이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증가를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또 장변병제는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훈련도감군은 주로 빈천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군역 복무실태는 조선전기와 같지 않았다. 갑사와 정병으로 대표되는 조선전기의 중앙군은 대체로 지방에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갑사는 지방의 부유층으로서 이들은 당번이 되면 기마(騎馬)와 복마(卜馬) 그리고 종자를 거느리고 서울로

50) 『宣祖實錄』 35, 宣祖 26년 2월 丁亥, 21책 622쪽.

51) 『宣祖實錄』 49, 宣祖 27년 3월 己卯, 22책 231쪽.

52) 鄭尙驥, 『農圃問答』 設兵制 (乙酉文庫 125, 乙酉文化社 270쪽).

我國兵制 當初五衛 頗合古制 壬辰以後 權設軍門 至於今日 多至四五營 不耕之民 聚于京師 食四方之貢賦 靡一國之錢布.

53) 서울 근교의 상업적 농업에 대해서는 金容燮, 「朝鮮後期の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1971. 참조.

올라와 군역 근무에 임했다. 즉 조선전기의 중앙군은 지방에서 미·포(米·布)를 가져와 서울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의 군역 근무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훈련도감 군인들은 이와 달리 가족을 데리고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군역 근무에 임했다. 그런데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급료와 보포가 서울 생활에 충분하지 않자 이들은 군역 근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시전 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⁴⁾

이외에도 장번병제의 등장은 서울에 주택문제, 위생문제, 범죄문제 등 이른바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훈련도감군의 서울 집중으로 인해 서울은 “집이 없는 소민(小民)들이 한 뼘의 땅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다”⁵⁵⁾라고 할 만큼 택지 확보가 쉽지 않게 되었다. 또 훈련도감군은 빈민층으로서 이들의 거주지는 불결하여 전염병이 돌 때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문제, 위생문제보다 지배층들이 더욱 우려한 것은 훈련도감군으로 인한 각종 범죄의 빈발과 사회질서의 문란, 중세적 국가체제의 동요였다. 대략 한성부 전체 호수의 10% 이상을 장번병인 훈련도감군이 차지하였는데, 이들에 의해 강도와 강간 사건이 빈발하였고, 양반 사족이 구타당했으며, 또 집단적으로 정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장번병제의 등장은 중세 사회질서를 동요시키고, 서울에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왔다.

54) 拙稿, 『17세기 訓練都監 軍制와 都監軍의 활동』, 『서울학연구』 2호, 1994.

55) 『承政院日記』 270, 肅宗 5년 6월 23일, 14책 372쪽.

56) 拙著,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3, 277~292쪽.

4.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의 세 번째 변화는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군체가 변환하였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군 전술은 기병전술이 주축을 이루었다. 기병전술은 고대사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장기였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궁마(弓馬) 위주의 기병전술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 이래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기마전술에 능한 거란과의 3차 전쟁, 여진 정벌,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기병전술의 필요성이 고조된 바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건국한 조선왕조는 북방민족에 대한 기병전술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⁵⁷⁾

실제로 조선왕조의 주 방어대상은 임진왜란 전까지 늘 북방민족이었다. 물론 남쪽의 왜구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왜구의 침습에 대해서는 대마도정벌을 통해 그 근거지를 소탕하는가 하면, 계해약조(1443)를 맺어 일본의 무역요구를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주어 대일관계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반면에 북방 야인들의 변경침략은 회유와 정벌이라는 교린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특히 세종대에 4군 6진의 영토개척 과정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족과의 충돌이 벌어지자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었다.⁵⁸⁾

조선 초기에 여진족의 기병위주 전술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서(兵書)인 『진도지법(陣圖之法)』과 『계축진설(癸丑陣說)』에는 50명을 기본 전투 단위로 편성하고, 다수의 예비 병력인 유군(遊軍)을 두어 적의 임기응변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기본 전투 단위에서 전체의 약 40% 이상의 병력은 기병으로 편성하여 여진족의 속도전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조선전기 군사 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병과 보병의 편성 숫자를 5:5 정도로 동일한 인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

57) 沈勝求, 「朝鮮時代の 武藝史 研究-毛毯를 중심으로-」, 『軍史』 38호, 1999. 126~127쪽.

58) 위의 글.

으로 볼 때 동일한 편성 인원이며, 보통 기병 1명당 보병 5~7명을 상대할 수 있으므로 전투력을 바탕으로 비교해 본다면 조선군은 보병에 비해 몇 배 이상의 비중으로 기병 전력을 편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이와 같이 조선전기 군사체제에서 기병은 중추적 군사력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기병들이 타는 말은 매우 중시되었다. 태종 9년(1409) 사간원에서는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군사이고, 군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이다.”⁶⁰⁾라고 하였고, 세종 29년(1447) 의정부에서도 “농사에서 소가 중요하듯이, 군사에서 말이 중요하다.”⁶¹⁾라고 하여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국가에서 기병들에게 분배해 준 것은 아니었다. 기병은 갑사와 기정병(騎正兵) 등의 병종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말을 마련하여 군역 근무에 임하여야 했다. 즉 갑사는 스스로 기마(騎馬)와 복마(卜馬·짐말), 군장 등을 갖추고 종자를 거느리고 상경하여 도성 경비와 궁궐 숙위를 담당하였고, 기정병 역시 기마·복마를 갖추고 서울로 올라와 군장 점고를 받고 군역에 임했다. 갑사들은 취재 시험에서 합격하였더라도 말이 없으면 취소가 되었고⁶²⁾, 기정병들은 기마와 복마를 갖추지 못하여 군장 점고에서 빠질 경우 절도사와 수령, 호송 군관, 그리고 본인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⁶³⁾ 따라서 갑사와 기정병 등 기병들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을 준비하여야 했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와 지주제의 전개 속에서 확대되는 농지 개간에 의하여 목장이 줄어들면서 말의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⁶⁴⁾ 기존연구에 의해서도 14세기 후반부터 연해지역의 낮은 곳에 설치된 목장이 해도(海島)로 옮겨지고 있었고, 16세기에는 해도의 목마장도 대부분 개간되어 가는 추세에

59) 崔桐國,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11쪽.
 60) 『太宗實錄』 18, 太宗 9년 11월 壬午, 1책 517쪽. ‘國之所重者兵也 兵之所重者馬也 故周制 掌兵之官 不曰司兵 而曰司馬 馬之於國 其用重矣’
 61) 『世宗實錄』 116, 世宗 29년 5월 丙辰, 5책 25쪽. ‘牛之於農 馬之於兵 所係至重’
 62) 『世宗實錄』 44, 世宗 11년 5월 壬申, 3책 182쪽.
 63) 『成宗實錄』 29, 成宗 4년 4월 戊辰, 9책 15쪽.
 64) 『中宗實錄』 88, 中宗 33년 10월 癸未, 18책 224쪽.

있었다고 한다.⁶⁵⁾ 이에 따라 말의 수요는 격감하였다. 중종 17년(1522)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은 성종 대 말의 수요는 4만 여 필에 달하였는데, 지금은 겨우 2만 여 필에 불과하고 그나마 거의 쓸모없는 품종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⁶⁾ 불과 3~40년 만에 말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던 것이다. 그 후 선조 33년(1600) 좌의정 이항복 역시 조선초기에는 7만 필, 중종 대에는 3만 필, 명종 대에는 1만 필로 말의 수요가 점차 감축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⁶⁷⁾ 이외에도 당시 상품 유통의 진전 속에서 상인들은 말을 도살해서 판매하였고,⁶⁸⁾ 향촌에서는 운송용으로 말을 혹사시키면서 말의 수요가 격감하였다.⁶⁹⁾ 이러한 상황에서 말 값은 폭등하였다. 말 1필의 가격이 면포 200필에 달할 정도였다.⁷⁰⁾

16세기 이후 말은 줄어들고 말 값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병들은 말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관료들은 ‘예전에는 기마 군사가 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4~50명에 불과하다.’⁷¹⁾라거나, ‘말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백에 하나, 둘도 안 된다.’⁷²⁾라고 탄식하였다. 또 기병들이 번상하여 서울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말을 먹일 초가(草價)가 너무 올라 말을 사육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비싼 말이 중간에 죽는 경우까지 생겼다.⁷³⁾ 그래서 감사들은 말이 있는 자도 적었을 뿐더러, 말이 있는 자라도 자신이 타고 온 말은 돌려보내고 서울에서 말을 빌려 타면서 군장 점고를 받고 시위근무에 임했다.⁷⁴⁾ 그러나 말의 대여료가 점차 인상되어 군사훈련 시

65) 李泰鎮, 「15·6세기의 低平·低濕地 開墾 동향」, 『國史館論叢』 2, 1989.

66) 『中宗實錄』 44, 中宗 17년 2월 丁亥, 16책 98쪽.

67) 『宣祖實錄』 121, 宣祖 33년 정월 甲戌, 24책 32쪽.

68) 『中宗實錄』 44, 中宗 17년 2월 丁亥, 16책 98쪽.

69) 『中宗實錄』 21, 中宗 9년 10월 辛丑, 15책 35쪽.

70) 『燕山君日記』 48, 燕山君 9년 2월 庚申, 13책 547쪽. ‘買馬時 … 幾至二百餘匹而得買’

71) 『中宗實錄』 5, 中宗 3년 2월 辛卯, 14책 232쪽.

72) 『中宗實錄』 36, 中宗 14년 9월 甲午, 15책 567쪽.

73) 『中宗實錄』 39, 中宗 15년 4월 壬戌, 15책 642쪽.

74) 『中宗實錄』 36, 中宗 14년 6월 甲申, 15책 548쪽, 『中宗實錄』 39, 中宗 15년 4월 壬戌, 15책 642쪽.

빌려 타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⁷⁵⁾ 이와 같이 16세기에 들어와 기병들이 말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기병의 전투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술의 변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 당시에는 북방에서 소수의 여진족만을 상대하면 됐기 때문에 전술의 변화를 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조 25년(1592)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장계에 따라 조선정부는 이일(李鎰)과 신립(申瑬)을 순변사와 3도순변사에 임명하고 조령에서 일본군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일은 상주에서 8백여 명의 방어군을 편성하여 맞섰으나 일본군의 기습으로 궤멸하였고, 신립도 기병 8천 명을 이끌고 충주의 탄금대에서 진을 쳤지만 패배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근접전에 유리한 단병(短兵)과 기병을 주력군으로 편제했지만, 조총부대를 3개 조로 나누어 선봉대에 배치함으로써 일본군의 장기인 근접 백병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반면에 조선군은 여전히 북방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한 활과 화기를 이용한 장병(長兵)과 기병을 주력군으로 하는 전투 방식이었다.⁷⁶⁾ 충주 탄금대 전투를 이끌었던 신립(申瑬)의 경우, 천연의 요새인 조령을 포기하고 기병전술을 펼칠 수 있는 충주성 근처의 평야로 전투지를 옮기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심지어 조선군이 배수진을 친 곳은 논이 많아 실제도 말이 달리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병전술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임진왜란 개전초기 조선군의 기병위주 전술체계는 일본군의 조총과 근접 백병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⁷⁷⁾

임진왜란 초전에서의 참패를 통해 조선 정부는 일본군이 지닌 조총의 위력을 실감하였다. 유성룡은 개전 20일 만에 서울을 내주는 참패는 실로 조총

75) 『中宗實錄』 60, 中宗 23년 2월 丙午, 16책 625쪽. ‘習陣馬價 前則給半匹買之 今則雖給三匹 常不得易買云’

『中宗實錄』 89, 中宗 34년 정월 己亥, 18책 247쪽. ‘一馬一日之借 價幾四十四’

76) 李弘斗, 「임진왜란초기 조선군의 기병전술」, 『白山學報』 74, 2006.

77) 崔炯國, 앞의 논문, 27쪽.

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진단하였다.⁷⁸⁾ 국왕 역시 ‘적의 승리는 단지 화포 때문이다.’⁷⁹⁾라 하여 이것을 인정하였다. 물론 조선에서도 조총과 같은 소화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 말 이래 우수한 화약병기가 계속 발달하였고, 특히 16세기 말 임진왜란 직전에는 ‘승자총통’이라는 총이 개발되었다.⁸⁰⁾ 그러나 이것은 손으로 약선(藥線)에 불씨를 점화, 발사하는 방식으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는 조총에 비해서는 그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것마저도 당시의 주 무기인 궁시(弓矢)에 밀려 제대로 그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임진왜란 초전에서 조총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조선 정부는 즉시 포수의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 5개월 후인 선조 25년(1592) 9월 정부에서는 당시 의주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의 참장(參將) 낙상지(駱尙之)에게 포수 양성을 의뢰할 계획을 논의하였다.⁸¹⁾ 조선 정부가 조총의 제조 및 사용법을 전습한 것은 임진왜란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2월이었다.⁸²⁾ 이후 선조는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조총을 학습하도록 명령하였고, 조총의 사격술을 과거의 시취 과목에 넣도록 지시하였다.⁸³⁾ 그리고 포로로 잡힌 왜군을 통해 화약제조법을 알아낼 것을 명하고⁸⁴⁾, 역관 표헌(表憲)이 이들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알아내자 그에게 포상을 내리기도 하였다.⁸⁵⁾ 이후 조선 정부는 포수 양성에 주력하였다. 심지어 선조는 나라 안의 모든 군사들을 포수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릴

78) 柳成龍, 『西厓集』 권16, 雜著 記鳥銃製造事(한국문집총간 52책 320쪽) ‘及壬辰之變 內外靡然 旬日之間 都城失守 … 實由於倭賊有鳥銃之利’

79) 『宣祖實錄』 39, 宣祖 26년 6월 壬子, 22책 21쪽.

80) 조선초기 화약 병기의 발달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許善道, 「火藥兵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 1969, 『韓國火器發達史上』, 軍事博物館, 1968 ; 李康七, 「韓國의 火炮」,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6.

81) 『宣祖實錄』 30, 宣祖 25년 9월 甲戌, 21책 545쪽 ; 31, 宣祖 25년 10월 癸巳, 21책 551쪽.

82) 『宣祖實錄』 35, 宣祖 26년 2월 乙未, 21책 628쪽 ; 36, 宣祖 26년 3월 丙寅, 21책 661쪽. ‘鳥銃之制 則已爲傳習矣’

83) 『宣祖修正實錄』 27, 宣祖 26년 2월 丙戌, 25책 637쪽.

84) 『宣祖實錄』 36, 宣祖 26년 3월 丙寅, 21책 661쪽.

85) 『宣祖實錄』 36, 宣祖 26년 3월 壬午, 21책 675쪽.

정도였다.⁸⁶⁾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군제가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조총의 등장이 조선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조총은 '나는 새도 맞출 수 있어 조총(鳥銃)이라고 한다.'⁸⁷⁾라고 하는 바와 같이 당시로서는 명중률이 대단히 높은 무기였다. 또한 조총은 종래 조선의 총포와 같이 손으로 약선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겨서 발사하는 것으로 명중률뿐만 아니라 발사 속도에 있어서도 종래 조선의 총포에 비해 2~3배나 빠른 우수한 무기였다.⁸⁸⁾ 또 사정거리도 멀었고, 소리도 위력적이었으며⁸⁹⁾, 사용법도 간단하였다.⁹⁰⁾ 이와 같이 조총은 종래의 무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무기였다.

조총의 등장은 궁시를 위주로 하는 조선전기 무기·군사체제에 대한 일대 전환을 요구하였다. 비록 조선전기에도 개인 휴대용 소화기인 승자총통 등이 개발되어 실전에도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전까지는 여전히 궁시 위주의 무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무사의 모습이 조선전기 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군사였던 갑사는 바로 이러한 무사를 시취(試取)하여 편성한 군대였다. 그러나 궁시는 상당한 근력과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여야 했다.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궁시 연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했다. 또한 무사는 궁시를 비롯하여 말과 안장, 갑옷 그리고 종자까지 보유해야 했다.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한 무사를 갑사로 흡수하여, 군직(軍職)을 수여하고 과전과 녹봉을 지급하면서, 국왕에

86) 『宣祖實錄』 39, 宣祖 26년 6월 壬子, 22책 21쪽.

87) 『宣祖實錄』 71, 宣祖 29년 정월 丁酉, 22책 643쪽. '能中飛鳥 故曰鳥銃'

88) 『星湖僿說』 4, 萬物門, 陸若漢. '鳥銃不用火繩 而石火自發 其放丸 比我國二放之間 可放四五丸'

89) 『仁祖實錄』 16, 仁祖 5년 5월 丙寅, 34책 198쪽. '禦敵之備 莫如用砲 其力可以及遠 其巧可以命中 其威聲 又可以僻易人馬'

90) 『承政院日記』 109, 孝宗 즉위년 11월 13일, 6책 199쪽. '鳥銃易於習熟 不在多放 可以成材' 『愚伏集』 5, 玉堂論時務劄 (한국문집총간 68책 90쪽) '砲非難習之技 人人可學'

대한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는 군사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총의 등장은 이러한 무사의 존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조총은 궁시보다 5배나 성능이 뛰어났다.⁹¹⁾ 비싼 갑옷으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사들도 조총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죽어간 것이 임진왜란 전장에서의 모습이였다. 아무리 항우장사처럼 힘이 세다 하여도 조총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⁹²⁾ 조총의 등장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호쾌한 무사의 모습에서 대오를 갖춘 보병들이 조총을 쏘는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또 전투 형태도 개인의 무예가 중시되던 것에서 이제는 조직적인 집단의 운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총의 등장은 군사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부문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총은 궁시와 같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제작되는 무기였다. 또 조총은 역시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화약과 연환(鉛丸)을 필요로 하였다. 훈련도감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분업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무기제조장을 설립하고, 그 원료 조달을 위해 둔전, 시장(柴場)을 설치하였으며, 철광, 유황광, 연광(鉛鑛) 등의 광산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군수 광공업과 수공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맺음말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사 개설서로 정평이 있는 신편 『한국사』는 조선을 초기, 중기, 후기로 3분하는 시기구분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는 종래의 방식은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으며,

91) 『宣祖實錄』 68, 宣祖 28년 10월 丁未, 22책 575쪽. ‘鳥銃五倍于弓矢’

92) 『英祖實錄』 47, 英祖 14년 8월 乙丑, 42책 602쪽. ‘鳥銃出而 項羽無以容其力’

임진왜란 전후에는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조선 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군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드러났고, 또 이를 계기로 군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군제의 변화가 임진왜란이란 외침으로 인해 나타났지만 변화의 요인과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선 사회 내부이고 임진왜란은 변화의 촉발점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전·후기로 나누는 시기구분의 기점으로 삼는 다하여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진행된 군제의 변화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왔다. 즉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그 이전의 중세 사회에서 중세 사회 해체기라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갔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변화로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군사지휘체계가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사병제와 공병제의 채택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몇 차례 변동이 있었다. 역사상 국가가 등장하고 군사제도가 출현한 이후 군사지휘체계는 사병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부터 각 지역의 부족장이 군사 지휘관이 되어 부족원들을 군인으로 만들고 이들을 훈련시키며 전투에 동원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힌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부터 성립한 사병제는 1000년이 지난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 그 폐해가 극단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에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겪은 이후인 고려 광종(949~975) 때에 이르러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되었다. 이후 지휘관과 병사 간에 사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 이러한 고려의 공병제는 대략 200년이 지난 후인 1170년 무신정변이 발발했을 때 폐지되고 다시 사병제로 돌아갔다. 이때에는 군인들이 집권자와 장군의 마음대로 소집·동원되고 이들의 집권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병제는 다시 230년이 지난 후인 1400년(정종 2년)에 태종에 의해 혁파되고 다시 공병제가 수립되었다. 그런데 조선전기 공병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군사를 출전시켜야 할 때 단지 장수만 있고 그에

소속된 병사가 없는 상태를 가져왔고, 조선은 초전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다. 이에 공병제가 수립된 지 193년만인 1593년(선조 26)에 설립된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사병제의 도입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광종 때부터 임진왜란까지 공병제와 사병제는 대략 20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 즉 임진왜란은 조선전기의 공병제에서 조선후기의 사병제로 바뀌는 분기점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병제의 수립에 따라 조선후기 정치에서 군사적 비중과 영향력은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두 번째 변화는 군인들이 번상병에서 장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은 조선전기에는 갑사, 조선후기에는 훈련도감이 담당하였는데, 조선전기의 갑사는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다.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이 번상병제로 운영되는 것은 조선전기의 갑사가 유일하다. 이러한 번상병제의 도입은 태종의 병권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짐작된다. 태종은 사병 혁파로 일단 장군과 갑사의 사적 관계를 차단시켰지만, 이들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경우 사병적 관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갑사의 번상제를 추진하였다. 이들이 지방에 머물면서 교대로 번상 근무하면 장군과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따라서 사적 관계가 형성될 우려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갑사를 번상병제로 운영하자 갑사의 무예 수준이 떨어지고, 번상 근무 역시 부실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국왕 선조는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농부라고 통탄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중 설립된 훈련도감은 군인을 전원 장병병제로 운영하였다. 훈련도감군들은 서울에 상주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면서 군역 근무에 임했다. 그런데 이러한 장병병제는 서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상품 화폐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주택문제·위생문제·범죄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가져왔던 것이다. 즉, 임진왜란으로 인해 등장한 장병병제는 중세 사회 질서를 동요시키고, 서울에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왔다.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의 세 번째 변화는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군제가 변환하였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군 전술은 기병전술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데 번상병제로 인해 갑사나 기정병 등 기병들이 먼 지방에서 말을 끌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 상황은 점차 부실해졌다. 특히 16세기 이후 지주제의 전개에 따른 농지 개간 등으로 목장이 줄어들고 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말 값은 폭등하여 대부분의 기병들은 말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병들의 전투력은 약화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한 조선은 충주 탄금대에서 기병 전술을 펼쳤지만 조총을 주 무기로 하는 일본군에게 궤멸 당하였다. 조총의 위력을 목격한 조선은 즉시 포수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총을 제작하고 훈련도감을 설립하였다. 조총의 등장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조총의 등장은 종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사의 모습에서 대오를 갖춘 보병들이 조총을 쏘는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또 전투 형태도 개인의 무예가 중시되던 것에서 조직적인 집단의 운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조총의 등장은 군사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부문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훈련도감은 조총과 화약, 탄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분업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무기제조장을 설립하고, 그 원료 조달을 위해 둔전을 설치하였으며, 철광, 유황광, 연광 등 광산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군수 광공업과 수공업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전기 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군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군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즉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번상병제에서 장번병제로,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군제의 변화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2. 6. 15,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壬辰倭亂, 中央軍制, 公兵制, 私兵制, 番上兵制, 長番兵制, 騎兵, 步兵, 射手, 砲手

<ABSTRACT>

The Changes of Central Army System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Kim, Jong-soo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transformed the central army system in three respects. First, it transformed the way to control the soldiers. It abolished the personal control system which was made in the period of military regime of Goryeo Dynasty and introduced a public control system in 1400. But there was a serious shortcoming in this system. While the generals could command soldiers allotted to them in theory, they did not have any soldiers in fact. Because the soldiers were consisted of peasants who worked in their fields in peacetime.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Hunryongdogam(訓練都監) introduced the private control system in 1593.

Second,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abolished the rotation system of soldiers. King Taejong(太宗) introduced the rotation system of Gabsa(甲士) to prevent any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generals and Gabsa. But military abilities of Gabsa fell severely and the rotations were not kept correctly. King Seonjo(宣祖) said in a sharp regret that Gabsa were not soldiers but peasants. Therefore Hunryongdogam which was founded in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was consisted of standing armies.

Third,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transformed the main forces of armies from cavalry soldiers to infantry soldiers. Because cavalry soldiers who should take their turns from distant regions tried to evade their duties in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horses which was made worse i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fter 16 century and the sharp rise of price of the horse made their carrying out their duties more difficult. Moreover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learned

the superiority of matchlock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The armies of Joseon Dynasty whose main forces were cavalry soldiers were defeated by the Japanese armies which used matchlock. So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tried to train soldiers to use guns. The introduction of matchlock influenced greatly the military industry of Joseon Dynasty.

Key Words :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the central army system, the public control system, the private control system, the rotation system of soldiers, standing army, cavalry, infantry, bowman, artillerist